

‘폭풍의 시대’ 헤쳐온 한국 지식인들의 지형도

윤건차의 《현대 한국의 사상흐름》

신광영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이 책은 1980~90년대 한국 지식인들의 사상적 지형도를 보여준다. 넓은 의미의 진보적 지식인과 그들의 이론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검토된다. 식민지 경험의 해석 문제, 변혁 주체 설정 문제, 새로운 국민 개념 형성 문제, 통일 사상과 아이덴티티 문제 등 지은이가 제기한 문제들은 한국 지식인들이 해결해야 할 학문적 과제다.

《현대 한국의 사상흐름》(윤건차, 장화경, 당대)은 1980~90년대 한국 지식인들의 이론과 이념을 다룬 책이다. 이 책에서는 대부분 현존하는 지식인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들의 이론이 소개 및 평가되고 있어서 오늘날 한국 지식인의 지형도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물론 모든 지식인이 등장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넓은 의미의 진보적인 지식인과 그들의 이론이 다루지고 있다. 한국의 지식인들이 대부분 보수적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 책은 지식인들이 자기가 어느 지점에서 있는지 자리매김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현대 한국사상의 평가서

《현대 한국의 사상흐름》은 세 가지 점에서 독특한 책이다. 먼저, 제일 교포 학자가 한국의 1980년대와 1990년대 사상을 정리했다는 점이다. 둘째, 이 책이 일본에서 먼저 출판되고 거의 동시에 한국에서 번역·출판됐다는 점에서 출판계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셋째, 저자는 한국의 사상을 논하면서 자신의 사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한국 현대사상의 소개서가 아니라 평가서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국내의 이론이 국내의 조건(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과 사회운동의 현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전개됐기 때문에 이런 사정에 익숙하지 않은 해외의 학자가 이론에 대해서 균형있는 소개와 평가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노릇이다. 그 결과 아마도 일부 절친한 혹은 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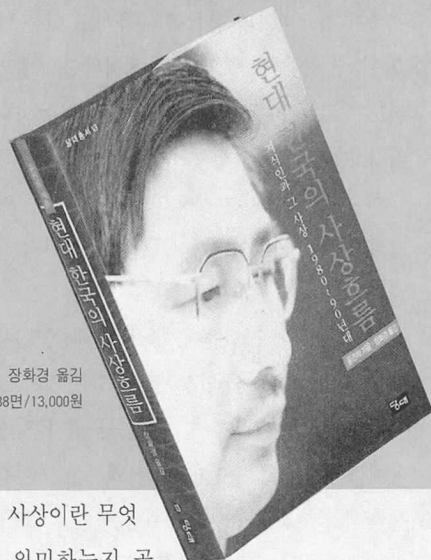
접촉한 국내의 학자들을 통해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접했을 것이라고 짐작하게 된다. 이런 점이 이 책에 배어들어 한편으로는 해외학자로서 하기 힘든 작업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다른 한편으로 이 책의 내용이 편향될 수 있는 소지도 만들었다.

더군다나 유럽 좌파이론과의 관계 속에서 한국의 이론을 분석하고 있어서 동서를 넘나들며 지성계의 흐름을 정리하고 있다는 느낌도 주고 있다. 그러므로 때로 그것이 일본에서 받아들여지는 서구 좌파의 이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서구의 해석과는 다른 유럽 좌파의 이해가 제시되기도 했다. 특히 알튀세르의 구조주의적 마르크스주의의 해석이 그러하다.

사회사상보다는 사회이론에 무게중심 뒀

저자는 현대 한국의 사상을 정리하면서 한국 사상의 과제를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이 부분이 저자의 사상을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문제제기기도 하다. 네 가지 과제는 식민지 경험의 해석 문제, 변혁 주체 설정 문제, 새로운 국민 개념 형성 문제, 통일 사상과 아이덴티티 문제다. 이런 문제들은 한국 현대사가 세계체제 속에서 식민지 지배, 분단, 독재정치, 산업화 등을 거치면서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은 것들이다. 저자는 이런 큰 문제를 다룰 것을 한국의 지식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현대 한국의 사상흐름》을 읽으면서, 여기에



장화경 옮김
당대/A5신/388면/13,000원

서 사상이란 무엇
을 의미하는지 곰

곰이 다시 생각하게 됐다. 이 책에서는 흔히 학자들이 다루는 경험적 세계를 설명하는 사회과학 이론과는 다른 차원에서 사상이 다루진다. 사회과학 이론들은 경험적 정합성이나 검증 가능성 혹은 반증 가능성 등으로 평가되지만, 사상은 이런 기준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기독교 사상이나 통일 사상은 특정한 가치관에 근거해 그 자체로 완결된 논리에 의해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과학 이론과 사회사상은 부분적으로 공유하는 바가 있을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다른 차원의 논의다. 이 책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혼재돼 있고, 엄밀하게 본다면, 사회사상이 아니라 사회이론이 더 많이 다루지고 있다.

‘폭풍의 시대’였던 1980년대와는 분명히 다른 전환의 시대였던 1990년대가 지나갔다. 그리고 우리는 21세기 불확실의 시대를 살고 있다. 오늘날 한국은 한편으로는 경제위기, 대량 실업, 빈곤층 확대, 불평등 심화 등 경제체제 차원의 해결 과제를 안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갈등과 남북 통일 등 사회통합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지구적 차원으로 전개되고 있는 세계화와 정보화라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경험적 현실의 전개 과정을 분석하고 인과 관계를 밝히는 사회과학 이론과 이런 변화를 좀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사상이 필요하다. 《현대 한국의 사상흐름》은 이런 모색을 하는데 필요한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